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當自尅修,
隨其教訓.
己不被訓,
焉能訓彼.

남을 가르치는 바른 그대로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아라. 다루기 어려운 자기를 닦지 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쳐 닦게 하랴.

<法句經>

學·處長級 全員連任

7日, 東國學院 理事會서 承認

◇權農林大學長 ◇申行政大學院長

行政大學院長=申國柱博士
農林大學長=權寧大教授

學校法人 東國學院理事會(理事長=尹營中)에서는 지난 7일(月) 本會를 열고 李瑄根總長의 재청에 따라 임기만료된 各 學長및 處室長의 진임 連任을 승인하는 한편, 그간 궐위중이었던 行政大學院長에 申國柱(敎外科) 박사, 農林大學長에 權寧大(林學科)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지난 8일에 열렸던 학처장 회의에서 李瑄根총장은 임기만료 補職者들이 그간 大過없이 大學發展에 만전을 기하고 財政的 안전기반구축, 학생지도에 공헌해온 점을 감안, 總力體制가 강조되는 이시기에 인사교체는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 각 학처장급 진임을 연임시킨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李總長은 보직연임된 교수들은 綜合 大學의 간부나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大學行政에 성실하게 임해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李總長은 과거 학사행정상의 경험을 살려 다음 新任 敎學課長및 主任敎授 名單이다.

◇敎學課長

▲文理大=金鍾浩(統計科) ▲法政大=金鎭轍(政外科) ▲農林大=金昌浩(林學科) ▲師範大=金炯俊(敎育科)

◇主任敎授

▲哲學=韓相璉 ▲美術(畫理)=金昌熙 ▲會計=李龍擇 ▲化工(畫理)=申鉉昭 ▲食工=尹柱憲 ▲敎育學=金東玉 ▲國語敎育(畫理)=金東俊 ▲國史敎育(〃)=金昌洙 ▲敎育(〃)=洪錫珏

◇申柱行政大學院長

▲憲化專門卒▲東國大學文學部 史學科卒(文學士) ▲日本法政大第1法學部 政治科卒(法學士) ▲法政大學大學院 社會科學研究科卒▲皇稻 ▲法學=徐廷甲 ▲政外(畫理)=金鎭轍 ▲經營=李順龍 ▲化工=李龍擇 ▲食工=尹柱憲 ▲敎育學=申鉉昭 ▲國語敎育(畫理)=金東俊 ▲國史敎育(〃)=洪錫珏 ▲敎育(〃)=金昌洙

◇權寧大農林大學長

▲安東公立學校卒▲日本慶應大政外科敎授▲東國大學校卒▲日本農林省林產加工部卒▲農林專門學校卒▲安東中學校卒▲農林專門學校卒▲日本農林省林產加工部卒▲農林專門學校卒▲安東中

社說

大學과 體育振興

學年度末의 불볕는 選手스카우트戰도 가르앉는 新學期가되면 確保된 選手들의 訓練을 지켜보며 곧 있을 各種競技에 無限한 期待를 걸어보게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各大學街에서 每年 되풀이되는 實情인데, 여기에는 그나름대로의 理由가 있다.

즉 그것은 大學이 苦口만 일삼는 敎育을 그 機能의 全部로 믿었던 前世紀的인 大學觀이 反省되어 全人的敎育을 通하여 國家와 世界의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人物을 養成하여야한다는 것으로 大學存立의 價値觀이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크게 힘입고 있다.

새 時代가 大學에 要求하는 全人的敎育이라고 하는것은 知的 倫理的인 啓發과 더불어 指導者로서 健全한 體力과 그 社會와의 共同意識의 促進같은 것이 要求되는 바, 이것은 大學의 體育活動을 通하여 가장 効果的으로 啓發될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같이 各大學이 그 大學을 代表하는 몇사람에게만 集中的인 訓練을 하며 各種競技에 參加케 하여 國家의 榮譽를 기 拔하여 間接的인 體育敎育의 効果를 노리는 것이 各大學의 實情이다.

이와같은 各大學의 選手選擇은 共同意識의 涵養과 紐帶持續 그리고 勝負에 얽힌 高潮속에서 맞보는 大學生活은 浪漫은 體育活動에서만 얻을 수 있는 高貴한 果實인 것이다.

現在 國內外의 大學이 正式의 敎科課程에 못지않고 또 때로는 더 큰 比重을 體育選手의 選拔과 訓練에 投資한다는 奇現象까지 보이게 되는 것도 大學間의 各種競技를 通하여 얻게되는 이와같은 敎育効果에서인 것으로 믿는다.

우리大學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競技를 主로 하는 體育部가 있었던 것은 東國人뿐아니라 全國民의 周知事實로 되고 있다.

特히 76學年度에는 이와같은 大學內의 効果的인 活動을 企劃·進行하기위하여 體育振興委員會가 發足되어 있는 것은 冷靜한 內에 設置되고 있는 것은 先輩들의 世界에서 이어받은 빛나는 勝負의 體育系譜의 榮光을 되살려 이 方面의 敎育効果를 極大化하려는 目的이 있는것은 말할 것도 없다.

事實에 있어서 우리 大學이 每年 選拔하는 選手의 敗北는가 各種競技에 消滅되는 豫兆였고 種目 鄕土 어느 大學에 못지 않다는 點에 비추어 보아도 運動部全體를 統轄하는 委員會같은 機構가 그 興衰된 業務만 圓滑히 遂行하면 各種競技의 國內外制覇는 말할 것도 없고 國外까지도 東國人의 氣魄을 널리 알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疑心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 第二共和國의 生活基調對象者에 대한 보호 수준은 너무 미약한 감이 없지않다.

원래 생활보호(公的扶助)의 목표가 최저생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있는 것이고 보면 앞으로 우리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더욱과 보호수준면에서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先決問題가 해결된 후에도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體系를 「保險主導型」으로 할 것인가 또는 「扶助主導型」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래 社會保障事業의 추축은 社會保險이지만는 우리나라의 현 實情으로 보아서는 社會保險中心의 社會保障體系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雇傭水準이 낮고, 또 雇傭構造의 近代化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低賃地帶가 비대하여 보험대상의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公的扶助에 우선순위를 두어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을 끌어 올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있다. 둘째, 所得保障(老齡給付, 廢疾給付, 遺族給付 및 兒童給付)과 醫療保障(疾病給付, 出産給付 및 公共保健서비스)의 두가지 給付中에서 어느 쪽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겠으나 더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醫療保障이 소득보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째, 현재 까지의 社會保險은 단편적인 單一保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契機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따로 發達되어 왔다. 이것을 統合保險制度로 하여 「統合保險制度」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험대상자의 醵出金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統合保險制가 가까운 장래에 실시되어야 한다. 네째,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財政資金制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政府主導的인 積極的인 雇傭創出 政策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전단계인 실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産業間에 賃金格差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社會保障事業의 추축은 社會保險이지만는 우리나라의 현 實情으로 보아서는 社會保險中心의 社會保障體系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雇傭水準이 낮고, 또 雇傭構造의 近代化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低賃地帶가 비대하여 보험대상의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公的扶助에 우선순위를 두어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을 끌어 올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있다. 둘째, 所得保障(老齡給付, 廢疾給付, 遺族給付 및 兒童給付)과 醫療保障(疾病給付, 出産給付 및 公共保健서비스)의 두가지 給付中에서 어느 쪽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겠으나 더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醫療保障이 소득보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째, 현재 까지의 社會保險은 단편적인 單一保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契機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따로 發達되어 왔다. 이것을 統合保險制로 하여 「統合保險制」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火急을 요하는 보험이 바로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이다.

앞으로 실시코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종래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導入을 위해서는, 사회안정과 국민총화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高度成長과 더불어 각종 社會立法과 開發立法을 서둘러야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火急을 요하는 보험이 바로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이다.

앞으로 실시코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종래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導入을 위해서는, 後社會의 방식에서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社會開發的 전근방법」을 全社會部門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社會保障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이새로운 社會保障制度실시 방향은 첫째, 여러 임전사회부문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社會部門의 정책의 목표를 인간존중과 人的能力開發重視를 중심으로 하는 「人力開發政策」에 두어야한다. 세째, 사회보장의 모든 給付와 保護水準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勞動力을 保全하고 生産性과 능률이 향상되는 水準으로까지 상승되어야한다. 네째,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당면목표는 健全한 전통가정의 保護 에 두어야 한다. 마라서 종래의 「個人保護」방법을 지양하고 「健全家庭保護」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의 종류와 그 대상및 각종給付水準面에서 대단히 零細한 편이다. 사회보장의 목표는 全國民의 生活水準의 향상인데, 현재의 제도는 保險面에서 보면 一部職域保險인 公務員年金과 軍人年金이있고, 公務員年金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1백30여萬人에 대한 廢疾保險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公的扶助面에서 보면 居宅保護對象者 39萬人 중 70%인 28萬人에게 1일 3백원의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실정이다.

사실 한 나라의 貧困層에 대한 보호수준이 그 나라의 최저보장수준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보다면 우리의 生活保障水準은 아직도 너무 낮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社會保險은 단기간 社會保險으로 하여 「統合保險制」를 실시케 國民福祉年金을 서둘러야되는 문제가 있다. 보험대상자의 醵出金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統合保險制가 가까운 장래에 실시되어야 한다. 네째,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財政資金制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政府主導的인 積極的인 雇傭創出 政策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전단계인 실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産業間에 賃金格差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社會保障事業의 추축은 社會保險이지만는 우리나라의 현 實情으로 보아서는 社會保險中心의 社會保障體系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雇傭水準이 낮고, 또 雇傭構造의 近代化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低賃地帶가 비대하여 보험대상의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公的扶助에 우선순위를 두어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을 끌어 올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있다. 둘째, 所得保障(老齡給付, 廢疾給付, 遺族給付 및 兒童給付)과 醫療保障(疾病給付, 出産給付 및 公共保健서비스)의 두가지 給付中에서 어느 쪽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겠으나 더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醫療保障이 소득보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째, 현재 까지의 社會保險은 단편적인 單一保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契機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따로 發達되어 왔다. 이것을 統合保險制로 하여 「統合保險制」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火急을 요하는 보험이 바로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이다.

앞으로 실시코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종래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導入을 위해서는, 後社會의 방식에서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導入을 위해서는, 後社會의 방식에서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韓國의 社會保障

政府主導型이 雇傭創出 필요

효율적인 統合保險制 채택해야

勞動力保全 生産性과 能率 向上

<무근무 韓國코스니유·博政>

金翰周

會保障體系를 「保險主導型」으로 할 것인가또는 「扶助主導型」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래 社會保障事業의 추축은 社會保險이지만는 우리나라의 현 實情으로 보아서는 社會保險中心의 社會保障體系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雇傭水準이 낮고, 또 雇傭構造의 近代化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低賃地帶가 비대하여 보험대상의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公的扶助에 우선순위를 두어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을 끌어 올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있다. 둘째, 所得保障(老齡給付, 廢疾給付, 遺族給付 및 兒童給付)과 醫療保障(疾病給付, 出産給付 및 公共保健서비스)의 두가지 給付中에서 어느 쪽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겠으나 더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醫療保障이 소득보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째, 현재 까지의 社會保險은 단편적인 單一保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契機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따로 發達되어 왔다. 이것을 統合保險制로 하여 「統合保險制」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火急을 요하는 보험이 바로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이다.

앞으로 실시코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종래의 救貧的인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積極的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導入을 위해서는, 後社會의 방식에서

77年度 學徒護國團 올해는 內實化에 力點

77年度 1學期事業計劃

本校學徒護國團(團長=魚潤浩·林學4)은77학년도 1학기학업계획을 발표했다. 「公園」紙를 통해 밝혀진 사업계획은 學徒護國團 출범이후 주력했던 일부행사를 보완, 內實化를 통해 學友와 함께하는 행사에 주력을 둔것이 특색이다.

護國團의 사업계획은 모든 행사를 내실을 기할수 있는 알찬 행사로 만들겠다는 기본 방침아래 세워놓고 있다. 기본 방침을 살펴 보면, 첫째, 對外的인 이미지를 刷新하고 東國人의 준지가 배어있는 행사를마련하며, 둘째, 校內 淨化는 적극적인 弘報活動을 통해, 강압적인 하달보다는 自律的인 이해와 참여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함 예정이다. 세째로 行事의 질을 높여 참여 학생들에게 精神的 共感度를 주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넷째, 오락주의의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를 탈피, 學術的인 행사에 주력하며 또한 학술행사에 중점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계획은 살펴보면 학술적인 행사가 종전보다 많아졌다. 「모의株主總會」등 종전의 행사가 복수됨되었고 그럼축면에서 파악해 복수있다. 또 「師大藝術祭」등이 새로운 행사로 등장,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東國人展大의 행사인 「東國祝典」에 學術祭가 새로 추가되어 學術行事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護國團에서는 금직한 행사에중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앞으로 護國團축의 각종 사업계획 운영이 주목된다. 大隊別 部署別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聯隊

第1聯隊(연대장=김정현·政外4)는 佛敎大·文理大, 法敎大, 經商大등 4個大隊로 편성되어있다.

주요행사로는 작년에 內外의관심을 모은 佛敎大의 「美術科 卒業美展」, 文理大의 「文學」8·9합병호 發刊, 經商大의 「就業가이드」 發刊등이다.

1大隊(佛敎大)
<대대장=정윤환·印哲4>
○佛敎思想대강좌(5월) ○「東國思想」發刊(5월) ○新入生환영體育大會(4월) ○美術科 卒業美展 ○宗敎部 行事 보조

2大隊(文理大)
<대대장=한준호·敎學4>
○「東國文學」8·9합병호 발간(6월) ○교수·학생 간담회(4월)

3大隊(法政大)
<대대장=노창원·行政4>
○學術세미나 ○師大藝術祭(演劇·詩畵展등·5월) ○「師苑」發刊(5월) ○體育大會 ○師範大새마을 運動 展開

特殊大隊

主要行事로는 여학생 특수대隊의 女學生 작품전시회, 新入生환영회, R·O·T·C特殊大隊의 연곡제, 文集 發刊등이 있다.

女學生大隊
<大隊長=김영미·社敎·4>
○신입생 환영회(3월) ○작품전시회(5월) ○敎養講座(6월)

R·O·T·C大隊
<名譽총학장=문찬식·化學·4>
○임용제(5월) ○體育大會(5월) ○文集 發刊(6월) ○전배장교 연합대회(6월)

部署別事業계획

각 大隊가 大隊 안의 행사만 계획하고 있는 반면 각 部署에서는 全東國人을 상대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그 규모가 클뿐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끌고있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문예부가 주관하는 開校71周年기념祝典, 文藝部와 總務部가 공동주최하는 신입생 환영회, 本校에만 있는 宗敎部의 「宗敎祭」, 체육부의 체육대회, 女學生部의 「숙야제」등은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화려한行事들이다.

總務部
<部長=박대용·幹行·4>
○公報紙 發刊 ○每日英語 배부및 英語 競進大會<문예부와공동·4월~7월> ○각종간담회 주관및 행사 기획

訓鍊部
<部長=이언·林學·4>
○영어大會 ○사격대회(5월)

文藝部
<部長=김동용·國文·四>
○신입생 환영회<총무부와 공동>(3월) ○開校 71주년「東國祝典」주관·學術祭, 藝術祭, 民俗祭, 假異등>(5월) ○「東國」13輯 發刊(5월) ○文藝 산하써클 연합대회

새마을部
<部長=이윤호·寧丹·4>
○校內 淨化事業(3월) ○남도 어린이초청(5월) ○奉仕活動(8월) ○써클·룸 확경미화 ○새마을 운동설문사례 發表會 ○써클장修練大會

宗敎部
<部長=정상경·佛敎·4>
○「부처님오신날」行事(5월) ○宗敎祭(5월) ○宗敎部 合同修練大會(7월) ○고아원 방문(5월) ○「釋林」發刊(6월)

體育部
<部長=박해석·體敎·4>
○勉學분위기 조성및 校風확립운동전개(3월) ○교도소및 소년원 위문(6월) ○指導部修鍊(7월)

女學生部
<部長=안명수·家敎·4>
○特講 實施<꽃꽂이, 書藝, 육화, 복제와구성> ○숙야제 <作品展 ○연극들의관전> ○숙야모회(5월) ○「보리수」發刊(6월) <澤>

學術行事의 質높여 스스로 참여토록 文援

學術行事에 중점 「東國祝典」五月에 開催

◇사색의 길에 마련된 詩畵展 <지난해 祝祭>.

大學街가 변하고 있다

勉學熱圍氣깔려인

生活化 되어가는 圖書館

대학의 心臟部

책(圖書館)을 떠난 大學을 생각할 수도 없다. 도서관은 그 대학의 心臟部로 大學人의 內的성숙을 도모하는 곳이다.

이 심장부가 근래에 들어서 불비고 있다. 大學의 「勉學」분위기가 그만큼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勉學과 불비는 圖書館을 함수관계를 가지고있는 까닭이다. 젊은이는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하여 잠자던 時流속에 곤장이리저리 휘슬리기도하고, 좌절을 하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이 젊은이다운 것은 적절한 自己位置를 찾는데서나타난다.

오늘의 大學人, 이들은 그가 안고 있는 환경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圖書館은 知的慾欲에 들끓는 그들의 심층내부를 끊어 당기는가장적절한 매력으로서 등장하게된다. 따라서 大學人들은 도서관육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연히 投合시킬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게시판 신문이라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本校에서는 76년을 그 전환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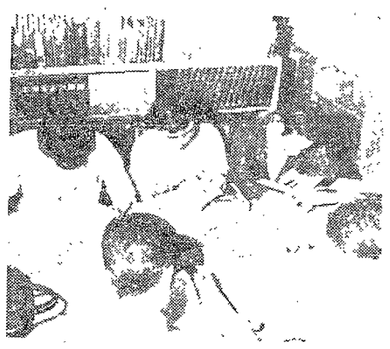
여기에서 도서관은 학생을 끄는 가장 강력한 磁引車로 성장하여 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은 마땅히 들러야 하는 장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지난해 통산 하루평균 4, 5百명이 도서관을 찾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층에 마련된 신문게시판은 하루종 학생들의 발길이 끊일줄이 없는 「신문이라도 읽고 가는 자리」가 되었다.

여기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代名詞는 「自己喪失」, 또는 「疎外」라는 용어들이다. 大學人들도 이러한 생각에 젖어들곤 했다. 그러나 大學街의 주인이 차츰 정립되고, 저마다 자신이 처한 현학한 좌표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도서관은 이들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해준 것이다.

자기實現의 활주로

지난해 도서관 이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는 「참고 정간행물실」의 이용자가 격증했다는점이다. 출입문제가채택됨이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추세는 實力, 또는 能力신장을위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學習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


◇卒業論文制度의 實施로 늘 붐비는 참고간행물 열람실.

<2>

시 높은 경쟁률을 얻구하고있다. 덤덤에 도서관을 열람할때 주관및 행사 기획 訓鍊部 <部長=이언·林學·4> ○영어大會 ○사격대회(5월) 양등 전문분야의 석적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제일 치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분야를 공부한다는것은 취업을 위한 전초단계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대학인들이 「낭만에 젖은 대학생활」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나가 발판을 굳힐수있는 「자기실현의 연마」에 치중하는 것이 대학의 도서관은 이들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해준 것이다.

內面的 成長의 안식처

열람실 확장등 學圖氣 개선

能動的 圖書館 활용 姿勢도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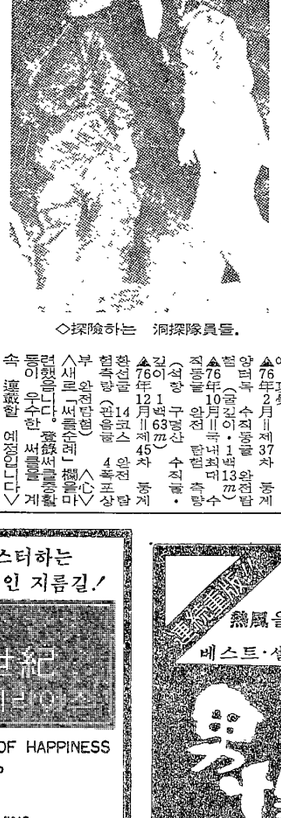
本校 도서관 열람실 통계에 의하면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자중 60%가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나머지 40%가 대출도서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 대출관계에 있어서도 文學관계 서적을 제외하고는 社會科學분야와 응용과학분야에 제일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도서관 열람실 통계에 따라, 자연 학생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돌렸던 것은방연하다. 관람을 끌고있다.

그러나는 鄭允武학생처장의 관방하게 활동하는 써클과 써클의수전을 맡은 가정원한이 어려운部員에게 대한 장학금 지급 계획이 다른 하나는 魚潤浩 사단장의 교내미화전에 적극참여한 우수써클에게는 5만원, 2등 2개써클에게는 각각 2만5천원, 3등 5개써클에는각각1만원씩의 상금을 수겠다고 한것이 바로그것.

이에대해 某써클의 K군은 「이같은 조처는 학교당국의 써클에대한 관심증대로 보여지며, 적극 이끌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분야를 공부한다는것은 취업을 위한 전초단계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대학인들이 「낭만에 젖은 대학생활」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나가 발판을 굳힐수있는 「자기실현의 연마」에 치중하는 것이 대학의 도서관은 이들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해준 것이다.

본교도서관 또한 이러한 최근의 추세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개관20년에 대열람실을 천여석으로 확장하고 천정도 3층의 밝음, 방석의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구입희망 도서함」을 마련, 학생들이 구입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 구입한다는 원칙아래 「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설비로써 학경을 마련한다는 것보다는, 진실로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학생들에 의한다. 그학교의 학풍을 좌우하는 것은 그 학교의 학생들인 법문인 것이다.


◇探險하는 洞探隊員들.

洞探探險部

探險과 精神으로 가을엔 슬라이드展도 계획

學界의 주목받으며 급성장

모험과 探險 精神으로 젊음이 물든 洞探探險部(部長=최용근·林學4)는 본교 정식 써클로 뛰어난 보이고있어, 對內外的으로 돌리 알려진 써클이다.

모험과 탐험을 心身단련을위해 모인 젊은이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일년에 이어받아, 韓國 第1의 동굴탐험부로서 발전했다. 이어서 洞探部의 活動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보면 探險과 學術面을 들 수 있다.

探險은 自然을 정복하려는 젊음의 소산인 모험정신의 시발점, 未知世界를 밝히려는 호기심과 探險心을 行動化·현실화하여 여러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를 배양한다. 學術面은 洞探探險에 있어 얻어진 資料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學界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 특특이 이름의 洞探探險部는 지난 1970년 정식으로 발족 그 이후 韓國洞窟協會와 깊은 유대를 맺고 강렬한 모험정신을 적 밑바침도 소홀히하지 않고 記錄, 보관한다.

이외에 일년마다 수차례의 裝備 보강을 하여 있으며 학술조사 및 탐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學術面을 보면 조사(化石문제)·언세우, 해충·동굴·洞窟生物·체 生態에 관한 조사 및 洞窟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밖에 洞探探險部는 그동안 이룬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1970년 제1회 韓國洞窟協會 주최 동굴탐험 ▲1971年11月=韓國洞窟協會 주최 제1회 동굴탐험 ▲1974年8月=제26차 하계 Y₂코스 완전답사 ▲74年10月=제27차 하계 4폭포 최초 답사 ▲75年8月=제35차 하계 양평독 수직굴 정선지구 답사 ▲75年11月=제36차 추계 삼척초당굴(天然紀念物) 답사 ▲76年2月=제37차 하계 양평독 수직동굴 답사 ▲76年10月=제38차 추계 답사 ▲76年12月=제63차 수직동굴 답사 ▲76년 1월 제45차 동계 환선굴(천연기념물 제178호) 답사 ▲76년 2월 제14코스 완전답사 ▲76년 4월 제4폭포 답사 ▲76년 12월 제63차 수직동굴 답사 ▲77년 1월 제46차 동계 환선굴 답사 ▲77년 3월 제17차 춘계 답사 ▲77년 9월부터 오는 17일까지 日本 關西大學 답사 ▲77년 3월부터 合同으로 삼척 답사 ▲77년 3월부터 合同으로 삼척 답사 ▲77년 3월부터 合同으로 삼척

道先壽

李慶教

山寺의 큰 스님 목소리
하루가 되면 쪽빛 하늘에 어우러진다。
산을 넘으면 산을 사라지고 아픈 바다
만 남아
아픈 바닷속을 내가 흐른다。
이따금 엮히는 珊瑚樹 사이
임수부은 아슬한 天上에 가 있는데
부끄러워 슬며시 돌아선 길
잠목을 만나고, 돌지로 돌아온 두견 따라
편 이 밤 어느 골으로
나는 꽃광양을 가보나。

〈師範大·國敎科〉

大學의 幻想

權潤玉

1年이 가까이되도록 나는 學校로 가는 지름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덕스런 발길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키는 데로 가기 마련이다。어물전이 유난히 많은 C市場을 지나고 구두와 바지에 비뚤한 구멍을 뚜렷이 쓰고。뒤이어 쓰레기場과 오물통을 든 사람들。

오즈음의거리엔 웬 술집이 그리도 많은지!

밤새도록 술로 비틀거리면서 性과 남녀의 갈등을 부르짖던 熱情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吐해냈을 아침의 嘔物들은 확실히 밤의 副産物에 지나지 않았다。

잠옷차림의 여자들이 분노차와 부딪치고, 진각한 방황의 흔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지난 날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모인 集團에는 그 특유한 浪費이었다。

個人各者가 그의 독특한 멋을 추구할때, 大學社會에서는 浪費不在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따스한 햇볕쬐는 봄날, 잔디밭에 누워 두세 마음맞는 친구와 나누는 몇마디의 對話는 항상 흐뭇하다。

現實에서 他人은 一次的으로나의 眼前이다。他人을 理解하려 할때 우리는 그 벽으로 막려싸인 虛像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抽象化의 가면은 구체적인 現實을 가린다。이 벽은 너와나의 성실한 접촉인 對話를 통해 돌려져야한다。

人生의 價値를 確立하고 多元的인 人間의 目標로하는 大學社會에 있어서 對話의 요청은 더욱 절실하다。敎授와 학생, 학생상호간, 책을 통한 對話등 어느 것이나 必要하다。그러나 生活의 쓰레기를 뒤지는 식의 무료한雜談은 意識의 마지막 출구조차 아버린다。制限된 意識의 突出口를 찾는 生産的인 對話를 나누기 위한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셔를활동을 매우 바람직하다。특히 각종 讀書서클의 활동과 他大學 生들과의 對話 또한 필요하다。

한해 敎養學部 生活을 上記한 것과 같은 大學社會의 一面의 필요성을 느끼게한다。아울러 外國語학습을 필수적인 것으로서 2·3個國語에 能通할 수 있다면그는 大學生으로서 敎養人으로서資質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를 보내며 진광의문턱을 넘는 문에서 나는 이렇게 바란다。

「외국어 학습을 열심히 하는동시에 충실히 專攻을 배우고, 멋과 浪漫의 對話를 추구하는 大學生이 되기를…」

〈法政大·法學科〉

脫制服의 낭만

李琦雨

몽경처럼 흩려보낸 敎養學部 시절을 뒤돌아 보는 것은 自身을 후회와 보람의 交叉路에 서게한다。祝福받은 칼렌다의 純白을落書로 채워, 한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벌써 2학년이 되어 있었다。原書의 책갈피 속에 드문 揷畵처럼, 소나기 뒤의 푸른 하늘처럼 깨끗한 단편들도 있다。

꿈같은 敎養學部를 떠나며 자신에게 느낀 바를 적어본다。

脫制服!그것은 生長過程에서큰 의미를 가진다。푸렝커맨이 되어 우선 발랄한 것은 外形的인 變化였다。制服은 劃一化되고 抽象化된 生活을 의미한다。制服을벗는다는 것은 이러한 劃一性을탈피하고 多樣性을 취함을말한다。

大學은 脫制服의 社會이다。脫制服은 高校까지의 구속과 嚴格함에서 해방되고 生活의 多元化를 이룬 뜻한다。

青年이 未來를 계승한다는 것을, 동시에 未來를 담당하는 役割이라 한다면, 大學社會는 이러한 未來의 진보적 엘리트를 기르는 기름진 토양이 되어야 한다。未來의 文化는 青年文化가成長하여 꿈임없이 更新되는 것인데 大學文化는 바로 그核이다。

따라서 大學社會는 自由와 正義의 産室이 되어야 하며, 大學生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폭포수가 되어야 한다。大學이 眞實을 의연하고 現實에 다현과 눈총에 길들어진 젊은이를 星座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浪漫不在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싱싱함과 生命이 약동하는 젊음의 모임에서 浪漫을 극히 자연스러움이다。그런데 大學街에 浪漫 不在라니 무슨 말인가? 나이가 젊다는 하나의 理由만으로는 젊음을 享有할 수 없을 정도로 現代의 메카니즘은 自然을 거스르고 있다。不死藥을 구하려던 秦始皇처럼 젊음을 찾기 위한 줄기찬 努力을 하지 않고서는 젊음을 享有할 수 없다。

浪漫은 이렇게 젊음을 찾기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얻는 甘露水이다。젊음의 싱싱한 모습이充滿하여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浪漫的인 生活이란 어떠한 것인가?영원히 마르지 않는 生命水는 詩的인 삶 속에서 흐른다。

詩的인 삶이란 물질적으로 멋진 삶의 律動을 가지고 있다。日本의 武士들은 「丈夫한 오로지 그 生涯를 한편의 詩로 살수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生活의信條로 삼았다고 한다。이러한 삶을 살며 우리는 「멋있다」고 느낀다。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勇者의 決戰에서 멋을 발견한다。스스로 심자가를 짊어지는 聖者에게서 멋을 찾는다。이러한 멋이야말로 浪漫의 核心的인 요소이다。덧붙는 사람들이 모인 集團에는 그 특유한 浪漫이었다。

個人各者가 그의 독특한 멋을추구할때, 大學社會에서는 浪漫不在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따스한 햇볕쬐는 봄날, 잔디밭에 누워 두세 마음맞는 친구와 나누는 몇마디의 對話는 항상 흐뭇하다。

現實에서 他人을 一次的으로나의 眼前이다。他人을 理解하려 할때 우리는 그 벽으로 막려싸인 虛像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抽象化의 가면은 구체적인 現實을 가린다。이 벽은 너와나의 성실한 접촉인 對話를 통해 돌려져야한다。

人生의 價値를 確立하고 多元的인 人間의目標로하는 大學社會에 있어서 對話의 요청은 더욱 절실하다。敎授와 학생, 학생상호간, 책을 통한 對話등 어느 것이나 必要하다。그러나 生活의 쓰레기를 뒤지는 식의 무료한雜談은 意識의 마지막 출구조차 아버린다。制限된 意識의 突出口를 찾는 生産的인 對話를 나누기 위한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셔를활동을 매우 바람직하다。특히 각종 讀書서클의 활동과 他大學 生들과의 對話 또한 필요하다。

한해 敎養學部 生活을 上記한 것과 같은 大學社會의 一面의 필요성을 느끼게한다。아울러 外國語학습을 필수적인 것으로서 2·3個國語에 能通할 수 있다면그는 大學生으로서 敎養人으로서資質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를 보내며 진광의문턱을 넘는 문에서 나는 이렇게 바란다。

「외국어 학습을 열심히 하는동시에 충실히 專攻을 배우고, 멋과 浪漫의 對話를 추구하는 大學生이 되기를…」

〈法政大·法學科〉

나의 열매

李恩心

「깨달았음 나무는 꽃 피우지 못하며 화살에 뚜인 독수리는 날지 못하리」

E·A·포우의 어느 詩에 나오는 한 귀절이다。詩人의 靈智는 젊음의 극단적인 純粹 理想에 대해 적정스럽음을나타낸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 問題를 保留하기로 하고, 내 자신이 體驗하지 못한 —抽象的인 어느것도 믿을 수 없다는—問題意識으로 하나하나 凡俗을 脫皮하고, 安逸을 拒否하고자 했다。그것은 물론 客觀的인 不忠實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르는 주위의 눈은 매섭고 찼다。

젊음은 愛嬌의 特權을갖는다。그것은 根源的인 문제의 제기로 시작되는, 궁없는 懷疑의 파장이다。또한 敎養塔 위에 선 젊음의 멜랑꼬리하다。

멜랑꼬리는 분태 社會의 참다운 上昇이 되기위한 굳건한 밑받침으로서 더 값진 것이다。앞으로 社會人의 되었을때 적어도 멜랑꼬리 俗해지는—까뮤의 「疫萍」이나 니체의는 「지금은 門昇」이 말하는 바—이 길이 존재하는 것은상승을 높이기 위한 前提條件일뿐이다。물론 멜랑꼬리가 없는 나 一直線上의 上昇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질상 힘든 일이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게 멜랑꼬리에 젖어 있었다。

일체의 客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카오스는 범람하는 장물이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기에는 너무 지적인었기도 모르는다。

눈이 반짝이는 친구는 「내가미친 것인지 그들이 미친 것인지모르겠다」고 말했다。오느미다。그래서 少數는 항상 고독한 것이었나보다。

뛰어난 潔癖症으로 學校를 잠시 피한 또 어떤 친구는 술자리 분위기가 마음에 안들었다다。그는 大學生의 술자리를 討論의 廣場으로 기대했지 스트레스 해소의 雜多한 노래가락으로 알고 있었다는 않았던 것이다。그의 성급함보다는 察淚하던 우리를 생각해 본다。

젊음이 浪漫을 무하고 갖기위해서는 참다운 浪漫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또한 알기 위해서는 工夫를 해야 한다。대체로 평범의 哲學에서 답을하고 安住하기도 하는 그는 과연 젊음인가?

生氣와 覇氣와 知的 好奇心, 그리고 사랑과…。

그럼에 人形이 되기위해서 4년을 消費하는 女學生은 나를 슬프게 한다。

그조차도 韓國的 현실이라고 그 때문에 前近代的인 사고방식이 그들이 입고있는 고운 천의 로하여 더욱 더 의아하게 보인다。

遺望으로 바라고싶다。갖산 權威主義에!世代는 지금 어떠한變遷을 겪고 있나를 아니 이것은 모든 時代를 통하여 되풀이 反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現代가 個人을 目的으로 대하기에는 바쁜 세상이지만 이 조차 개인을 手段으로 생각하고 마는, 그러한 모든것이 지금 「象牙塔 內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暴力的인 感情의 混亂 속에서 단단한 知性의 껍질을 발견했을 때 돌시 기뻤다。사람을 알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아니기에:그리고 그 적은 몇사람이에 나의 思考를 더욱 刺戟하기도 하였다。

個人과 社會가 부드러운 합점에서 만나는 中庸之道도 좋다。그러나 中庸의 결핍으로 저지르는 실수, 그것이 사소하다는 하나의 자신이 맡는 作品 앞에서 實體를 드러내기 위한 空白이였을때, 그 실질적인 폭발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나의 知性은 벼랑맡을 나무의 뿌리처럼 언으로 벼랑맡을 나무가 꽃을피울때 그 나무의 열매는…

〈文理大·史學科〉

『야스퍼어스 哲學』

李善珖 著

『야스퍼어스 哲學』
李善珖 著
본교철학과 이선광강사가 탈무하는 「야스퍼어스哲學」이출간되었다。석사학위 논문인 야스퍼어스의 실존철학에 관한 저서인 이 책은 논문을 기본으로 하고 야스퍼어스의 실존철학에 관한 저서들을 참고로 정하여 쓴 것이다。석사학위 논문과 저서들을 비교하여 야스퍼어스 철학의 핵심을 밝혀 놓은 것은 참으로 경하할만한 일이다。어려해 풍산 강단에서 야스퍼어스 철학을 강의하고 노고계신 李여사가 오랜동안의 노력과 끊임없는 애지의 학구생활을 거쳐 펴낸 산 저서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서의 내용을 보건 데 著者는 인간 야스퍼어스의 생애로부터 시작하여 실존 철학, 역사 철학, 包括者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야스퍼어스의 존재와 思惟와의 직접적 동일성을 전제로한 직접적 방법에 대한 간접적 방법으로서의 암호문자를 解讀하는데 있다。즉 存在를 통하여 되풀이 反省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존재와 思惟의 매체인 暗號文字를 읽는 것이다。근원적인 암호문자를 읽는 것이다。존재를 이해하려면 象徵(Symbol) 言語(Sprache)의 존재를 정립해야하는데 이러한 상징은 實存哲學의 暗號나 암호가 들려온다는 것이다。그리고 야스퍼어스는 존재를 非對象的인 包括者로 규정한다。

야스퍼어스가 탈무하는 包括者論(Periechon-tologie)의 形而上學은 超越者에 대한 實在的 關係를 명백하게 해명하는 것이다。초월자에 대한 탐구는 초월자에 대한 實存的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월자는 暗號文字에 의해서만 顯現되기 때문에 世界內의 現存在는 暗號文字에 의하여 초월자와 交際(Kommunikation)가 되는것이다。

말하자면 실존적 교제는 암호를 장소로하여 이루어진다。따라서, 야스퍼어스의 實存哲學은 초월자, 包括者 暗號文字, 實存間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著者는 이러한 야스퍼어스의 思想을 조리있게 잘 펼쳐냈다。根本思想을 조리있게 펼쳐냈다。단 지 第2部의 第2章 哲學의 構造를 밝히는데 있어서 第4部의 根本思想을 직접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말하자면 第3部의 歷史哲學을 제일 뒤로 돌렸으면 더욱앞을 것으로생각된다。

야스퍼어스 根本思想 조리있게 펼쳐

現代를 慧眼으로 直視하는데 도움

학 이번 이선숙여사의 「야스퍼어스의 그 철학의 출간을 바로 이 야스퍼어스의 그 철학의 이론을 알리는 신호가 되리라고 믿는다。철학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여 이 책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不敗의 영지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 아울러 이 시대 아울러 도래하여 많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생활 것이라고 야스퍼어스는 예언하고 있다。

이선숙여사는 「야스퍼어스의 그 철학의 이론을 알리는 신호가 되리라고 믿는다。철학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不敗의 영지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 아울러 이 시대 아울러 도래하여 많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생활 것이라고 야스퍼어스는 예언하고 있다。

한편 張漢基교수의 「比較演劇學의 硏究方法」과 77년도 출업생들의 論文들이 실려있으며 林栽福군(演映·3)의 창작희곡 「아리랑원」과 金孝經씨(演映科강사)의 「벽」(사르트르作) 脚色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演劇學報 第9輯

本校演映科編

甲記念特輯으로 꾸며졌다。張漢基교수(演映科主任)는 卷頭言에서 「우리演映科는 주춧돌로 노이장하신 李眞淳교수와 演劇貨技師의 정동과 李海浪 선생님의 교수진에 의한 우리 演映科의 歷史를 밝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文化短信

판소리「水宮歌」

月刊誌「뿌리 깊은 나무」를 發刊하고있는 「한국 브리태니커」社에서 主催하는 第55回 판소리鑑賞會가 오는 18일(金) 오후7時 市內 龍山區東子洞에 있는 「벧돈」會館에서 열린다。唱者는 朴初月여사로서 「水宮歌」를 부르게 된다。

불란서영화상영

시내 불란서문화관에서는 16일토로 12時에는 「철도병의 결투」, 하오 2時에는 「금지된 장난」, 4시부터는 「뮤트르·위고作 「레미제라블 1、2」편을 각각 방영한다。

本校 演映科 학술지인 「演劇學報」第9輯이 발간됐다。

특히 이번 號는 본교 演映科 교수 59년도 李眞淳교수와 59년도 본교에 재직한바 있는 回前 藝總會長 李海浪씨의 「깨달음의 꽃」이 실려 있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新刊안내

再修生

메아리

▲다난한에 실린신 입생貧困는 우리 지만學生들이 학문을 에게커다란 충격 을던져준다。新入 生62%가재수생。 숫자는 세계를놀래킨다。 이렇게재수생이급 증한것은 「再修年 限論」이대두됨으로 서재수생들이대 두된것이다。그것도 적 지만 學問없는 大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근대로 옮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나마저도 흔들이 고뇌한 자세에 일하는 학자의 책임과 학문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학문은 우리 學生이 학문을 해야 한다。 대체로 평범의 哲學에서 답을하고 安住하기도 하는 그는 과연 젊음인가?

生氣와 覇氣와 知的 好奇心, 그리고 사랑과…。

그럼에 人形이 되기위해서 4년을 消費하는 女學生은 나를 슬프게 한다。

그조차도 韓國的 현실이라고 그 때문에 前近代的인 사고방식이 그들이 입고있는 고운 천의 로하여 더욱 더 의아하게 보인다。

遺望으로 바라고싶다。갖산 權威主義에!世代는 지금 어떠한變遷을 겪고 있나를 아니 이것은 모든 時代를 통하여 되풀이 反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現代가 個人을 目的으로 대하기에는 바쁜 세상이지만 이 조차 개인을 手段으로 생각하고 마는, 그러한 모든것이 지금 「象牙塔 內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暴力的인 感情의 混亂 속에서 단단한 知性의 껍질을 발견했을 때 돌시 기뻤다。사람을 알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아니기에:그리고 그 적은 몇사람이에 나의 思考를 더욱 刺戟하기도 하였다。

個人과 社會가 부드러운 합점에서 만나는 中庸之道도 좋다。그러나 中庸의 결핍으로 저지르는 실수, 그것이 사소하다는 하나의 자신이 맡는 作品 앞에서 實體를 드러내기 위한 空白이였을때, 그 실질적인 폭발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나의 知性은 벼랑맡을 나무의 뿌리처럼 언으로 벼랑맡을 나무가 꽃을피울때 그 나무의 열매는…

〈文理大·史學科〉